

부산항만공사 제8대 사장에 송상근 씨 임명

- 부산항을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책임자로 평가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0일(월)자로 부산항만공사 제8대 사장에 송상근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5년 2월 10일부터 2028년 2월 9일까지 3년이다.

송상근 신임 사장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수산부 대변인, 주영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송 신임 사장은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까지 겸비한 해운·항만·국제물류 전문가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해운동맹 재편, 지정학 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물류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부산항을 세계적인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는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항만공사의 경영 안정은 물론,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북항 재개발 등 부산항의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부터 진행된 2차 사장 공모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리더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엄익환 (044-200-5750)
		담당자	사무관	김행숙 (044-200-5751)

참고

송상근 신임 사장 약력

□ 송 상 근 (宋 相 根)

○ 생년월일 : 1968년 12월 14일

○ 학 력 : 진주동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 석사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 박사 수료



○ 주요경력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14. 11 ~ '16. 11)
- 해양수산부 대변인 ('16. 11 ~ '18. 2)
- 주영대사관 공사참사관 ('18. 2 ~ '20. 8)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20. 8 ~ '21. 2)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21. 2 ~ '22. 5)
- 해양수산부 차관 ('22. 5 ~ '23. 7)